

# 6월 모의평가, 국·영·수 모두 어려웠다

지난해 불수능보다는 다소 쉬워 국어, 평이했지만 충분한 변별력 수학, 중위권 수험생 체감난도 ↑ 영어, 지문 생소하고 독해 복잡

덕교 교사는 “국어와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다고 말하지만 충분히 변별력이 있었다”며 “이번 모의평가 문항들이 여전히 수험생들이 느끼기에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수능에서 국어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첫 시험과목인 탓에 국어가 어려울 경우 다음 과목 시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수학 영역은 가형과 나형의 평가가 엇갈렸다. 수학 영역은 이과생이 응시하는 가형과 문과생이 응시하는 나형으로 나뉘며, 객관식 21번과 주관식 29·30번이 이른바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고난도 문항이다. 수학 가형에서는 이 킬러문항들이 아주 어렵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인 문항들의 경

우 계산방식이 복잡해 전반적인 난도가 높아졌다. 킬러문항은 쉬워지고 타 문항의 난도는 높아 중위권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학 나형은 ‘평이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전년 수능과 지난해 6월 모의평가보다 쉬웠다는 반응이다.

장 팀장은 “킬러문항인 29번과 30번 문제도 실력이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학 나형의 1등급 비율이 5.5% 이상 나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어와 함께 ‘불수능’을 유발했던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쉬웠으나 충분히 변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체 45문항 중 73.3%가 EBS와 연계

돼 출제됐으나, 이는 간접 연계 문항으로 수험생들이 체감한 연계율이 높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지영 교사의 설명이다.

장 팀장은 “지문 자체가 학생들에게 생소한 유형인 데다 독해 문항들도 복잡해 이해하기 힘들어 ‘EBS와 연계된 게 맞나?’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년 수능보다 쉽고 해도 국어와 영어, 수학 등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모의평가는 광주 1만9588명, 전남 1만4916명 등 전국에서 54만183명이 응시했다.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정답은 17일 오후 5시 발표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4일 광주 조대여고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치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달뜨기 06:49  
해질 19:44 달질 21:36

### 오늘도 폭염

대체로 맑고 오전에 해안과 일부내륙 안개 끼는 곳 있었다.

광주	맑음	18/33	보성	맑음	14/31
목포	맑음	18/27	순천	맑음	18/33
여수	맑음	20/29	영광	맑음	15/29
나주	맑음	14/33	진도	맑음	16/27
완도	맑음	18/30	전주	맑음	17/31
구례	맑음	15/33	군산	맑음	17/28
강진	맑음	16/31	남원	맑음	15/33
해남	맑음	14/30	흑산도	맑음	17/24
장성	맑음	14/31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	남서~서	0.5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	남~남서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서~북서	0.5~1.0	남동~남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0.5~1.0	남동~남	0.5~1.0

### ◇ 생활지수

주요	식중독	매우 높음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8:43 20:45
여수	04:09 16:12	10:12 22:50

### ◇ 주간 날씨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	☁	☀	☀	☀	☀	☀
19/28	18/25	17/28	17/28	17/27	18/28	18/28

## 광주·전남 5개 시·군 오늘까지 폭염주의보

광주·전남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나주·곡성·구례·광양·순천 등 전남 5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효

했고, 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와 전남에 내리진 이번 폭염주의보는 올해 3번째로 지난달 25일 해제 이후 일주일 만이다.

4일 낮 최고기온은 광주 품암지구 32.9도를 최고로, 곡성 32.7도, 순천 32.3도, 나주 32.3도, 구례 32.2도, 광양 31.4도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번 무더위는 6일 오후부터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9도, 전남 15~19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31도, 전남 26~32도로 예보됐다. 또 6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9도·전남 16~20도로 평년보다 2~3도 높고, 낮 최고기온은 광주 28도·전남 24~29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1~3도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오늘 환경의 날... 영산강환경청 다채로운 행사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24회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미세먼지 대책 강의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5일 오전 10시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사 대강당에서 유공기관 및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갖는다”고 4일 밝혔다.

‘세계 환경의 날’은 UN이 1972년 제27차 총회에서부터 매년 6월 5일을 환경 보전을 다짐하는 날로 삼고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기념식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기념행사에서는 그동안 지역의 환경보전에 공로가 큰 사회 각 분야의 환경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조선대 공영화, 시민과 함께 논의한다

7일 조선대 서석홀서 세미나 시민 참여 공영화 방안 토론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소는 오는 7일 오후 2시 서석홀 4층 대호전기실에서 ‘지방사립대학의 공영화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1946년 지역민들에 의해 설립된 조선대를 ‘어떻게 공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시민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사립대의 비리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전한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속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지방사립대학의 공영화에 관한 세미나가 열려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조선대학교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백수인 조선대 교수가 특강을 실시한다. 이어서 이철갑 조선대 교수의 사회로 ▲김명연 상지대 교수 ‘지방사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 ▲문상일 인천대 교수 ‘인천대의 공영화 과정과 과제’ ▲이건근 조선대 연구교수 ‘조선대의 공영화 가능성 진단’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광양 한국창의예술고 3학년 60명 모집

내년 3월 개교 예술 특목고 10월 21~24일 응시원서 접수

내년 3월 광양시 마동 일원에 개교 예정인 예술 분야 특수목적고등학교 한국창의예술고의 신입생 모집요강이 공개됐다.

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창의예술고는 2020학년도 입시를 통해 창의음악과 2학년, 창의미술과 1학년 등 총 3학년 60명을 모집한다.

기존 순수예술과 실용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미디어음악(Midi·컴퓨터음악)과 작곡, 콘텐츠헤빙, 디자인, 미디어아트 등 융합 전공 분야를 신설해 우수 창의예술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 전공별로 살펴보면 창의음악과는 성악 8명, 피아노 9명, 관악 5명, 현악 7

명, 타악 1명, 창작 4명, 실용음악 6명 등 40명을 선발한다. 창의미술과는 20명의 신입생을 뽑은 뒤 2학년부조, 조소, 서양화, 한국화, 디자인, 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 등 세부전공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일반전형에서 창의음악과는 내신 40%, 실기 60%, 창의미술과는 내신 60%, 실기 4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은 전남도교육청의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산출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지체부자유자 등 특별전형도 함께 실시된다.

응시원서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이며, 10월 31일 실기고사를 본다. 이후 11월 1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공별 실기고사 전형은 홈페이지(koreaart.hs.jne.kr)를 참조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oticon PEOPLE FIRST**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능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